

충청남도 3농혁신 비전과 추진전략

채호규 | 충청남도 농수산국장

오늘날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은 DDA와 FTA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정주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민의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농어촌으로의 회귀현상 등 긍정적 의미에서의 농어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농어촌지역을 단순한 농어업 생산만의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그리고 환경 및 경관공간(쉼터)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충남 농어업, 농어촌의 현실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농어업, 농어촌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농어업인과 도시민,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고자 농어업, 농어촌 혁신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 농어촌 혁신기본계획에서 3농이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의미하며, 혁신이란 묵은 제도와 방식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농 혁신이란 농어업 문제·농어촌 문제·농어업인 문제를 상호 연관된 일련의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종전계획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계승과 혁신의 기초위에 기존사업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유용한 상품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2012까지 4개년동안 4조3천9십억원 을 투자 34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농어촌 사회건설에 추구하는 것이다.

1.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 수립배경

가. 외생적 개발전략에서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전환 필요

충남은 2009년 540억 달러의 수출실적으로 전국 1위, 2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국내 무역흑자의 71% 담당하지만 충남경제의 성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지역에 진출한 재벌 대기

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장과실은 외부로 유출되고 실질적으로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외생적 개발전략을 채택한 결과로 이러한 전략은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고 지역의 종속적·왜곡적·파괴적 불균형 개발을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발전 불가피

충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9.5%, 생산액 7.2%를 차지하고 있다(2008년 기준). 충남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서북부 지역과 계룡시 등 5개 시군을 제외하면 농림어업은 충남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충남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어업의 발전이 불가피하다. 충남의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아산시 등 서북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의 농업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며, 이러한 농업생산(1차산업)의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농식품 관련 2, 3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의 쇠퇴는 곧 지역경제의 쇠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은 충남도민 모두에게 필요

도민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인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충남 농어업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토·자연환경 보전기능,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기능, 휴양제공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붕괴는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도시와 농촌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 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 목표 및 전략

가. 비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 도시와 농어촌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및 충남 도농 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나. 목표

①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및 열악한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②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충남도민 및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보급하는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③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인적·물적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 3대 추진전략

①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친환경 농어업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순환식품체계로 뒷받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 증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사회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지역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③ 농어촌 주민의 역량강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지역만들기)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 요소는 그 지역주민의 주체역량이 얼마나 배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학습·실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라. 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특징

① Hard Power에서 Soft Power로의 전환

기반정비, 시설조성 등 하드파워 중심에서 지역리더 양성, 주민역량 강화, 제도개선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였다. 총 347개 사업 중 기존 271개 사업은 소프트 비중이 42%에 머물렀지만, 신규사업 76개 사업은 소프트 비중을 65%로 확대하였다. 기존의 하드웨어 위에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물적토대위에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였다.

② 행정주도에서 민관협력 강화로

모든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지역주민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일방적 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간인이 참여하는 농어업, 농어촌 혁신위원회에 도 출연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가 각자 역할분담을 나누어 추진하였고 17차례 민관협력 세미나, 11개분야별 T/F팀 검토회 등을 40여회 개최하여 현장농정의 의견 및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③ 대외경쟁력강화에서 지역연대 강화로

경쟁력 위주의 농정에서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강화,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 조직화를 통하여 일시적인 혁신운동에 머물지 않고 도농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다.

④ 외생적 발전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농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토대위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새로운 기업의 창업, 전통산업과 농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도모하였고,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농어촌지역이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마. 예산투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4조 3천 9십억원을 투입하여 11개분야 347분야의 시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2조628억원, 도비 4,485억원, 시군비 1조709억원, 기타 6,267억원으로 구성되며 기존사업 76건에 6,694억원, 기존사업 271건에 3조6,39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구분	재원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용자	자부담	
합계	4,308,983	2,062,848 (48%)	548,510 (13%)	1,070,928 (25%)	183,496 (4%)	443,201 (10%)	
계	2011년	1,021,954	491,528	118,803	269,406	44,174	98,043
	2012년	1,083,594	510,565	142,751	268,740	45,877	115,661
	2013년	1,098,152	527,233	143,391	267,572	46,440	113,516
	2014년	1,105,283	533,522	143,565	265,210	47,005	115,981

3. 충남도정의 미래상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지역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확대될 것이며 지역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친화형(유기농업) 및 자원절약형 농업의 확대에 따른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 지산지소 학교급식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농수산물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 비농업부문이 농촌경제 확대와 농어업의 발전과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및 열악한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며 1차산업 뿐만아니라 2차와 3차까지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가 출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적, 물적,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